

“‘솔라시도’ 친환경 스마트시티 최적지”

에너지 자력도시·인공지능 도시·자동차 자율주행 시범도시 가능

신산업 기술 개발·사업화 동시진행 ‘리빙랩’ 실증단지 조성 시급

전남 미래도시 포럼

서남해안기업도시 ‘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가 친환경 스마트시티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남 미래도시 포럼’에서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솔라시도는 계획도시다. 에너지 자력도시, 인공지능(AI) 실증도시,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전남의 현실과 미래발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해남 구성지구에 조성하는 솔라시도는 신산업 관련 기술

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리빙랩(Living Lab) 개념의 실증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건설을 제안했다.

조 실장은 특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생산, 스마트 팜 조성 등 구상은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건설해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언급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라시도의 경우 전남도가 개발을 구상하고 인허가와 투자를 지원한 공익사업으로, 이미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세

로운 도시 운영 시스템과 신기술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솔라시도는 넓은 토지에 국내 최고 의 일사량, 온화한 기후, 수려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솔라시도의 비전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만으로 도시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저비용 공유도시 ▲AI 실증도시 등을 제시했다.

윤진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사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일사량 등 천혜 자연환경을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청정 환경을 구축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을 도입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조성, 미래도시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2만1000㎡(634만평)에 에너지 자력도시와 스마트 팜, 인공지능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솔라시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전력을 자체 수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 태양광 발전단지과 세계 최대 규모인 255MW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저장한다.

또 탄소 제로 교통정책을 적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대인 100ha 규모 스마트 팜 단지도 조성한다. 스마트 온실, 작물별 특화온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갖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전라남도 명예도민 된다

‘자원봉사대상’ 제정도 추진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토거(84)와 마가렛 피사랙(83·사진)이 ‘전남도민’이 된다. 또 두 분의 선양의 하나로 ‘마리아느·마가렛 자원봉사대상’ 제정도 추진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마리안느, 마가렛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다.

전남도는 “두 분은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자원봉사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한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 도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등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제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센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사회에 편진 한센병에 대한 편견



을 해소했으며, 오스트리아에 후원요청을 해 각종 의약품·생활용품 지원으로 한센인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하고 자원봉사대상도 제정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 땅 ‘여의도의 5.6배’ 늘었다

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 등 16.3㎢

공시지가 1489억원 증가

지난해 전남지역 토지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가 늘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토지면적이 1만2335㎢로, 전년보다 16.3㎢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한다. 이를 평균 공시지가(9139원/㎡)로 환산하면 1489억원의 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늘어난 토지는 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 15.9㎢,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3공구 매립 0.4㎢ 등이 다.

전남 토지는 용도별로 임야가 6982㎢(56.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

으며, 농지 3200㎢(26%), 도로 439㎢(3.6%), 대지 299㎢(2.4%), 기타 1415㎢(11.5%)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남 토지면적은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넓다. 필지 수로는 576만 필지로 전국 1위다.

시군별로는 해남군, 순천시, 고흥군 순으로 넓고, 필지 수로는 해남군, 고흥군, 나주시 순으로 많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면적이 늘면 자산 가치가 증대될 뿐 아니라 정부 교부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도민 눈높이 맞춤형 토지정책 실현으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불분 대출

(주)인천매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감원 0622, 법정의자율·명·명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초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명칭: 광주광역시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로 339, 2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동계훈련 최적지 전남 열기 후끈 최근 1만6천여명 방문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끄는 전남이 올해도 선수들의 열기로 뜨겁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9개 종목, 647개 팀, 1만6000여명이 전남을 방문하거나 방문할 예정이다. 고흥, 광양, 진도, 순천, 영광, 구례, 목포 등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종목별로는 야구·축구·육상·태권도 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광주 등 순으로 방문 인원이 많았다.

전남에는 따뜻한 기후, 풍부한 일사량 등 자연환경과 맛깔스러운 먹거리 등으로 해마다 겨울이면 전지훈련팀이 몰려든다. 해남 펜션, 여수 요트, 목포와 보성 축구, 나주 사이클 등 시·군별 특화종목 지원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남도는 동계훈련 유치 실적과 지난해 하계 실적을 평가해 차량, 물품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방육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지훈련팀 유치는 스포츠 관광산업은 물론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적 네트워크, 숙박시설·음식점 서비스 개선 등으로 동계훈련 최적지의 명성을 쌓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세계수영 시설 점검

17일 오전 광주시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에서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과 와킨푸를 시설위원장이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 올림픽 응원단 230명 파견…서해선 육로 이용 제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북한이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응원단 230여명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측 대표단의 규모 및 이동경로, 개최식 공동입장 및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남북 합동 문화행사, 북측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북측은 또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

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서해선 육로를 이용하여 남측으로 이동하는 안을 우리측에 제시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해육로는 개성공단 운영에 이용하던 경의선 육로를 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응원단 230여명을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은 북측 선수단의 종목 및 규모, 응원단 및 태권도 시범단 파견 규모,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마시령 스키장 이용 등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합동 문화행사와 마시령 스키장 이용 등은 우리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는 전자제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의 금강산호텔이나 마시령 스키장 등을 숙소나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향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헌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원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장흥 수문해수욕장 팬션 등 적합 770㎡ 평당 7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감동리 대지 1302㎡ 사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골개이트루전 전 2192㎡ 다용도가는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원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방출을 13층 2억5천
• 원산동 소방도 대지 146㎡ 북측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 원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무안 현령 평산리 바닷가 전 4542㎡ 8300만원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입해도를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측면 전 3천여평 포함 산 75780㎡ 4억
•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고흥군 동일면 팬션 땅 7061㎡ 팬션 267㎡ 8억2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선 13억2천
• 원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팬션 땅 1578㎡ 경관출을 4억6천
• 원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주월동 무등시점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서동 제일파000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각실17 달방임대출을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평 297 건평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칠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건1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건1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상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답 2,240㎡ 매 4억6천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